요즘 누가 종이책을 읽나구요?

김철우 (roca1089@daum.net)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론이 벌써 구식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세상은 브레이크 없이 달리고 있다. 매체(media) 종사자들은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전속력으로 체감했을 사람들이다. 인터넷의 발달, 기술의 눈부신 성과 덕분에 매체 환경은 급변했다. 라디오와 신문이 구시대의 매체로 강등되었고, TV도 '레거시 미디어' 취급을 받는 상황이다.

이러한 매체환경의 변화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인쇄매체에게 가혹하게 다가왔다. 이제 읽는 것보다 듣는 것, 보는 것이 편한 세상이다. 무엇을 읽는다 하더라도 인쇄된 것을 읽기보다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읽거나, e북을 보는 것을 선호한다. 온갖 전자기기 속에서 유년기를 보낸 2010년 이후 출생자에게는 종이에 인쇄된 문자를 읽는 경험이 생경한 것일 터이다.

인쇄매체, 그러니까 종이책은 고루하고 시대에 뒤쳐진 것이 될 뻔했다. 오늘의 발견이 어제의 지식을 뒤집는 현대사회의 보폭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 보였고, 그렇게 향수를 좇는 사람들만의 자그마한 도피처가 될 수도 있었다. 그렇게 과거의 향수를 불러오는 오브제가 될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 인쇄매체는 조금은 새로운 모습으로 매체의 지위를 지키고 있다.

잡지는 신문과 함께 인쇄매체의 두 축이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신문인 [한성신보]가 1880년대에 발행되었으며, 최초의 잡지인 [소년]은 1908년에 발간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그 역사가 대한민국의 근대사와 함께해 온 것이다. 때문에 잡지라는 매체가 새로운 것이라고 볼 순 없다. 허나 잡지의 정체성이 과거와는 매우 달라졌다.

역사가 오래된 잡지들은 대부분 시사, 정치, 경제에 포커스가 맞춰진 주간지들이다. 매일 발행되는 신문보다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몇 가지 사회적 이슈들을 깊게 다루는 기사들을 모은 형태이다. 이후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다양한 패션지들이 등장한다. 코스모폴리탄, GQ, 에스콰이어 등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을 잡지들이 이때 탄생했다. 이 같은 잡지들은 모두 언론사와 거대자본의 손에서 탄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기적으로 일정한 부수를 발행해야 하는 잡지 사업은 아주 오랫동안 자본의 고유 영역이었다.

그러나 최근 5년 사이에 잡지 시장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한 잡지들이 세상으로 나왔다. 대규모의 자본 없이, (비교적) 소규모의 자본으로 잡지를 출간하는 사례들이 많이 등장했다. 자본이 크지 않기 때문에 부수를 많이 발간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런 소규모의 잡지는 대자본의 잡지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잡지들은 잠재적인 독자들에게 '닿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잡지와 잡

재적 독자의 연결은 SNS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가능해진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귀중한 자원은 사람들의 관심이다. 그리고 그 자원이 한 곳에 집중되는 일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자신만의 마니악(maniac) 한 취향을 향유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취향을 깊게 파고 든다. 대중의 관심은 분산되고, 사람들은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집단을 이룬다. 같은 취향과 관심 아래 모인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그리고 자신의 취향에 대해 더 경험하고, 더 공부하고, 더 전문적이고 싶어 한다.

이렇게 모인 마니악 한 사람들은 두 가지 길에 놓인다. 첫째, 자신의 취향에 대해 글을 쓰거나 둘째로 그 글과 정보를 소비하거나. 지금 시장에 있는 소규모 잡지(자본에 종속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독립잡지'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는 자신의 취향에 미친 마니아들이 주된 생산자이다. 그리고 그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취향에 매료된 마니아들이다. 소규모의 독립 잡지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잠재적인 독자에게 닿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잡지 생산자들의 시그널이 그들에게 수신되기만 한다면 잡지 구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다.

십 년 전, 여러분이 자주 다니던 서점을 생각해 보자. 아마 서점 내부의 절반 이상이 수험서적과 아동서적으로 채워져 있었을 것이다. 최근에 어느 정도 규모의 서점을 가면 잡지로 꽉꽉 채운 매대를 쉽게 볼 수 있다. 서점에 가서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잡지 한 권쯤 찾아보자. 이런 소소한 소비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준다고 나는 믿는다.

아직 잡지가 낯선 분들을 위해, 내가 읽어보고 권할 만한 잡지 몇 권을 추천해 본다. 나의 취향이 짙게 반영된 리스트이니, 가볍게 참고만 하시길 바란다.

1. 매거진 필로

-분야: 영화

-영화와 언어와 사랑의 탐색지, <필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잡지이다. <씨네21>의 고정 필진이던 정성일, 남다운, 이후경, 허문영이 주축이 되어 발간하는 격월간 영화 비평 잡지이다. 일반적인 영화 잡지와 다르게, 심도 있는 영화 평론이 주를 이룬다. 다루는 영화 또한 대중적인 관심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예술영화와 독립영화가 대부분이다. 물론 영화 비평의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에게는 낯설 수 있지만 국내에서 접하기 힘든 해외 유명 필자의 글, 영화 관계자들의 담론 등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영화를 사랑한다면 이 잡지를 강력하게 추천한다. 영화를 사랑하는 나에겐 성경과도 같은 잡지.

2. Littor (릿터)

-분야: 문학

-‘민음사’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 잡지는 출판사인 민음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 문학잡지이다. 민음사에서 만든 잡지답게 양질의 문학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다양한 필자들의 에세이, 단편 소설과 시를 위주로 다루는 잡지이다. 이외에도 매 호(號)마다 하나의 이슈를 다룬다. 최근에 다룬 이슈들은 ‘میم은 어떻게 생산되고 유행하는가?’, ‘유튜브라는 새로운 매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처럼 우리에게 매우 밀접한 주제들을 다양한 필자들이 어떻게 바라보는 지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잡지에 담겨 있다. 문학을 가까이하고 싶지만 아직 문학이 어렵고 낯선 분들에게 추천한다.

3. 보스토크 매거진

-분야: 사진, 예술

-사진을 주로 다루는 출판사인 ‘보스토크 프레스’에서 격월간으로 발간하는 잡지이다. 잡지는 여러 사진작가들의 사진 작업을 다룬다. 전 세계 다양한 사진작가들의 작업과 작업기를 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영화, 문학, 전시 등 예술계 전반의 소식도 다루고 있다. 사진이 이 잡지의 뿌리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진 작업들과 이미지들이 담겨 있다. 넘 놓고 볼 수밖에 없는 이미지들이 가득한 잡지. 영감과 시각적 자극이 필요한 분들에게 강력 추천한다.

잡지라는 인쇄 매체에 대한 장밋빛 미래를 말했지만, 출판 시장이 많이 위축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해외의 유명 잡지들이 폐간했다는 소식을 종종 전해 듣는다. 오프라인 발간을 멈추고 온라인 서비스에 집중하는 매체들도 많다. 우리의 교지도 이 같은 온라인 중심의 변화를 따라가게 되었다. 변화를 따라간 것인지, 탈-오프라인화의 물결에 휩쓸린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우리의 글이 온라인에 실리면서 더 많은 독자들에게 닿을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다. 지금, 온라인 세상으로 첫 발을 내딛는 상지교지를 많이 응원해주길 바란다. 교지를 온라인으로 전환하였지만, 간간이 인쇄된 글들로 여러분을 찾아갈 수도 있다. 학교에서 상지교지를 만난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읽어주시길.